

더불어 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5. 4. 25.(금) 09:00	배포일시	2025. 4. 25.(금) 09:00 배 포 즉시
위원장	이정현 (010-7343-4565)	담당자	사무국장 최대혁 (02-6788-6971)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위,
한국기술사회와 정책협약 체결
“기술사의 전문성을 정책으로...
ICT산업과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위·한국기술사회,
25일(금) 정책 협약식 거행

- 이정현 위원장 “기술이 국익 되는 시대, ICT를 넘어 산업 전반으로 정치가 실천에 나서야” -

- 기술사의 위상 제고와 대한민국 ICT 산업 및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장 이정현 의원(서울 광진구갑)과 한국기술사회가 손을 맞잡는다.
- 이 의원은 25일(금) 오후 2시,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국기술사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 - 한국기술사회 간담회 및 정책협약식』을 개최한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기술사의 전문성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협력을 본격화하는 자리다.

- 이번 협약은 기술사의 현장 중심 전문성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역량이 맞닿아, ICT를 넘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의 첫걸음이 될 예정이다. 양측은 단발성 협력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정책 파트너십을 구축해 기술주권 확보와 글로벌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 간담회에는 이정현 정보통신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김형욱, 남호진, 안정상, 이원태, 정동호 부위원장과 권오상, 송경재, 장재진, 장용선 고문이 참석하며, 한국기술사회에서는 장덕배 회장, 장보현 상근부회장, 기유경 유로컨설팅 대표(부회장), 김천학 홍익기술단 부회장(이사)을 포함한 부회장단, 이사, 회원 등 30여 명의 기술사들이 자리를 함께한다.

- 협약서에는 ▲기술사 제도의 제도적 기반 강화, ▲청년 기술사 지원체계 구축, ▲기술 자문 활동 확대, ▲산업·학계·연구기관과의 교류 확대, ▲ICT 및 신기술 정책 개발과 예산 협력 등의 실질적 협력 방안이 담겼다. 향후 더불어민주당은 이 과제들을 대선 정책 공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또한,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소개된다. 해당 법안은 과학기술 분야 국제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고, 정부가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술사의 국제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입법적 시

도이자, 글로벌 기술경쟁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 이 의원은 “정책은 책상 위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실무의 감각,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기술에 대한 신념이 녹아들 때 살아 있는 정책이 된다”며, “이번 협약은 기술사의 미래를 위한 동행이자, 국가 기술주권을 위한 결연한 약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술사의 이름이 단지 자격증에 머무르지 않도록, 살아 숨 쉬는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강조했다.